

개요

세계적인 위기로 인한 여파는 상당한 속도와 힘으로 아시아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가의 국내총생산은 2008년 마지막 분기에 계절적 조정을 거쳐 연간으로 환산된 기준으로 15%나 급락하였고 2009년 첫 분기 중에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러한 심각한 영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단지 지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아시아는 선진국의 은행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금융 영업에 몰두하지도 않았다는 의미에서, 아시아는 그 위기의 진원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더구나, 그 지역은 그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거시경제적으로 건전한 양상을 띠고 있었고 또한 그럼으로써 선진국들로부터 밀려오는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견실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충격은 다른 지역에서 보다 더 즉각적이고 예리했다.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까? 제 1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 답은 아시아가 세계경제와 아주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데 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기술적으로 정교한 제조수출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는데, 그러한 제품의 수요는 붕괴되었다. 동시에 지난 10년간 아시아와 세계 다른 지역간 금융상의 유대관계가 심화됨으로써 아시아 지역은 전세계적인 차입 및 투자 축소의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전망하건대, 아시아의 성장방향은 앞으로도 세계경제와 나란히 계속 진행될 것이다. 2009년의 남은 기간 동안, 외부의 충격이 민간 투자 및 소비에 계속 밀려들어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다음, 세계 경제가 2010년에 회복되면 아시아경제도 역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그 회복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는데, 그 이유는 비단 세계경제가 계속 부진한 상태로 있을 것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제 2장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투자는 침체, 특히 금융상의 긴장이 수반되는 침체로부터 천천히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 시나리오가 지니는 위험의 정도는 불리한 쪽으로 기울어진다. 특히, 세계경기의 회복이 지연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는 훨씬 더 방심할 수 없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간의 복합불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 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진한 수요와 엄격한 금융조건이 지속됨으로써 기업의 애로가 급증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다시 아시아 지역의 은행에 영향을 미쳐 민간부문에 대한 여신제공 여력이 축소되거나 여신제공을 꺼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동시에, 기업의 파산이 급증하면 국내 수요에 그 영향이 파급되어 실업률을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끌어올리고 그로 인하여 소비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좀더 긴 안목으로 보면, 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국 수요의 구조적 감축위험에 놓여 있다. 내구성 소비재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여신이 손쉽게 제공되던 시대는 확실히 끝날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 가계는 지나치게 채무가 많은 재무구조를 교정하기 시작하였다. 그 경우, 아시아 제조 및 수출의 성장률은 구조적으로 수년간 더 낮아질 수 있고 또한 아시아의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은 더 이상 과거에 그랬던 것과 같은 성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의 정책입안자들이 당면한 과제는 두 가지이다:

- 첫째, 아시아가 침체로부터 더 빨리 그리고 더 힘차게 빠져 나오도록 돕고, 또한 불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효과적 경기부양책을 위한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2009 년에 시행된 경기부양책을, 특히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위험에 대한 보호정책으로서 다음 연도에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그와 같은 경기부양책은 임시적인 것이고 따라서 일단 회복이 확고하게 정착되면 완화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재정상의 신용을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은 아직도 정책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는 한편,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민간부문에 여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제 4 장에서 살펴본 1990 년대의 위기 때에 얻은 일본의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에는 가계와 기업의 재무구조는 물론 금융제도의 근본적인 긴장에 대처하기 위한 적시적인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둘째, 아시아는 금번 위기 이전의 성장률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수출로부터 벗어나 내수를 중심으로 하여 성장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중국은 국내총생산에 비하여 지난 10 년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던 민간 소비를 촉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그 밖의 여러 아시아 국가에는, 특히 건강, 교육 및 퇴직과 관련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예방적 저축에 대한 필요성을 줄여 줄 보다 강력한 사회보호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더 장기적으로는 환율절상 역시, 즉 자원을 내수용 생산 쪽으로 돌리도록 가격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